



전문 지식 축적이 제일 필요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임해야

김희정 / 세종대학교대학원

“우 선 매우 기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크고 작은 상들 중에서 가장 큰 상이고, 또한 기쁨도 제일 큼니다.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분들과 한국팩키지디자인협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희정씨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패키지디자인을 공부해 오면서 아직 배울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제품을 더욱 빛내 그 기능과 매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기쁨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분야로 정착시키는데 한 몫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정씨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디자인을 그냥 박스를 접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점과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중요성과 깊이에 대해 함부로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인상을 찌프리기도 했다. 패키지디자인은 시각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단순한 평면적 시각디자인이 아닌 비주얼적 요소와 입체적으로 표현될 때의 제품 디자인적인 면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디자인 분야로서 이쪽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이 제일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정씨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지탱하게 해준 것은 포장디자인을 하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희정씨는 “디자인을 해오면서 디자인은 그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이 탄생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가지 스타일만을 고집 할 수 없고, 시중에 출시되는 많은 패키지디자인들을 보면서 항상 새로운 작품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Good Package Design을 보는 것이 기쁘고, 제게 계속해서 패키지디자인을 하고 싶은 매력을 준다”며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앞으로 패키지디자인은 기존의 단순한 기능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소비자에게 기쁨과 감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김희정씨는 패키지디자인을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패키지디자인 분야는 매우 재미있는 분야이면서도 힘든 분야입니다. 컴퓨터 앞에서의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디자인 컨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 컴퓨터 앞에서의 작업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패키지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하며 첨단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야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김희정씨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어린 표정을 보면서 디자인업계에서의 탄탄대로를 기대해본다. ☺